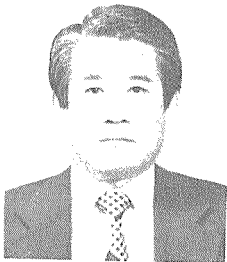


國內 部品産業의 構造 改善을 위한 提議



李 承 元

金岡電子工業社 社長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된
현재에 와서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의 토착화를
위한 고유영역 확보, 전문화 및 계열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 해결책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공존공영의 기업정신으로 최고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I. 序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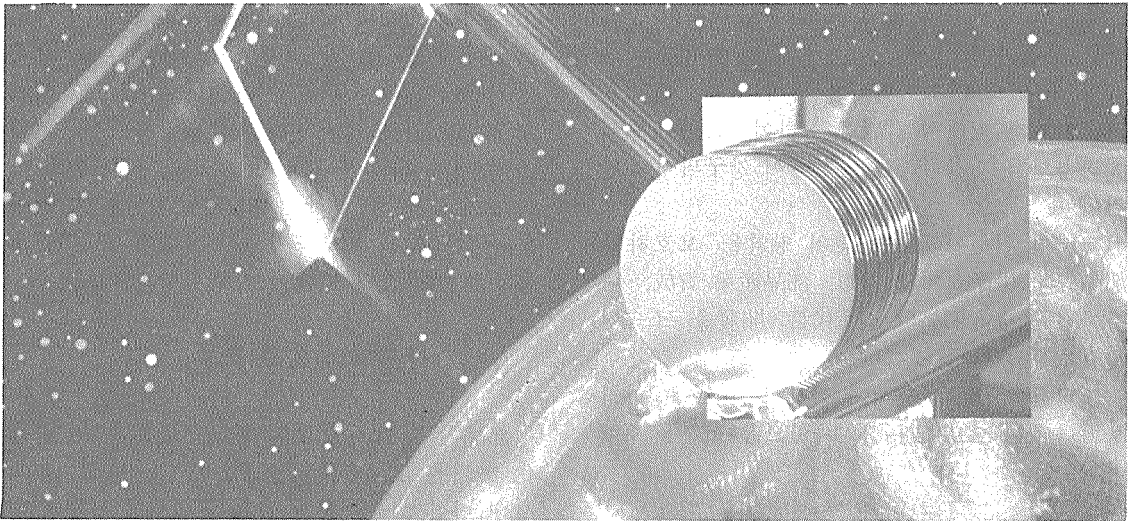
한 國家의 發展은 그 國家를 구성하고 있는
個個人이 自己分野에서의 역할이 重要한 것처럼
國家經濟의 發展은 그 國家의 여러 産業들을
구성하고 있는 各分野別 크고 작은 産業들의 相
互 均衡있는 成長 發展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특히 電子産業에서는 家庭用 電子製品으로부터
産業用機器, 通信機械 및 尖端機器 등과 같
은 組立製品에는 이들 機器 및 機械를 구성하는
部品の 質이 製品의 質을 결정하기 때문에 部
品産業의 重要性이 크게 요구된다고 본다.

더우기 部品産業은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을 高
度化 내지 先進化시키고 企業間 그리고 地域間
의 均衡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企業間的 分業과 大企業과의 系列化 내지 專
門化를 통하여 電子産業에의 前後方波及 效果의
提高와 生産迂回化를 통한 電子産業의 호환성을
높이는 效果를 가져다 준다고 하겠다.

더우기 先進國들의 보호무역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昨今에는 輸出増大의 일환으로 部品産業
의 育成을 통한 國際競爭力 배양만이 우리의 至
上課題인 輸出을 증대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 國際收支 개선을 도모하고 部品産業의 育成
및 발전으로 先進國의 輸入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輸出産業의 저변확대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기 部品
産業의 비중이 큰 中小企業의 育成發展을 위하
여 政府次元의 中小企業公團과 같은 大單
位 指導機關이 설립되고 系列化 促進法이라든
가 中小企業 固有業種 指定 등의 制度的 장치
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들 制度的 장치를 部品
의 受給企業과 供給企業間에 얼마만큼 相互 新
쇄속에 活用 및 實行이 되어왔고 되어있는가
가 문제이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다.

17年間 部品을 生産해 온 과거와 현재를 돌이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과감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켜 볼 때 우선 部品産業의 構造的 改善 이전에 部品産業의 安定된 土着을 위하여 部品産業의 領域 確保, 專門化 및 系列化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 電子産業은 그 동안 大企業과 中小企業, 組立企業과 部品企業, 그리고 輸出産業과 內需産業間에 대한 偏重支援 政策으로 産業構造의 不均衡이 深化되어 왔으며 輸入部品과 素材의 中間財 組立産業型態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部品産業 및 素材産業의 낙후와 함께 輸入誘發度가 높아 對外依存도가 높은 産業構造로 발전되어 왔다.

先進國들의 예를 보면 中小企業型 部品産業들은 技術人力이나 外部로부터의 정보 수집능력 등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技術開發에 있어서는 大企業보다 유리한 점도 많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이노베이션의 着手 그리고 새로운 事業의 開發은 대부분 中小企業型 部品産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크게 참고해야 될 것이다.

물론 部品産業에는 大企業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本稿에서는 中小企業의 部品産業을 중심으로 提言코자 한다.

먼저, 部品産業과 같은 中小企業을 위한 政府次元의 中小企業型 固有業種이나 系列化促進法과 같은 中小企業을 위한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런 制度나 法을 보다 현실적인 성과와 결과가 있도록 制度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部品産業을 위한 다음의 몇가지 點들이 土着化되기를 바란다.

- ① 部品産業의 領域 確保
- ② 專門化 및 系列化
- ③ 安定的 事業活動 助長
- ④ 共存共榮
- ⑤ 規模 위주의 정책이나 制度 지양

II. 部品産業의 領域 確保

우리나라 産業構造가 갖고 있는 하나의 취약점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共存關係가 定立되지 않으므로서 組立産業과 部品産業이 균형있게 成長, 發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組立製品 物量이 많아지고 部品需要의 經濟單位가 커지거나 自社 所要量이 增加함으로써 部品을 自給自足하려고 子會社를 설립하거나 部品企業이 앞으로 成長發展하여 차지해야 할 영역을 미리 점유해 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런 일들은 部品産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고 部品産業의 영역을 半減하거나 앞으로의 成長 發展할 목표의 영역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므로 制度的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기필코 억제시켜야 할 課題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部品産業을 위한 政策方向은 部品

企業들의 영역 확보를 도모해 주고 이들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 잠재력을 하루 빨리 촉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組立企業과 연계적 育成을 통하여 最終商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方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部品産業의 영역을 보호하며 部品專門 生産체제의 확립, 部品産業 育成, 나아가서는 輸入部品の 國産代替 開發을 조속히 실현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部品産業에게 희망적 領域을 바라보며 無限의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어야 하겠다.

Ⅲ. 專門化 및 系列化

앞에서도 언급된 문제이지만 中小企業 系列化促進法の 制定 이후 政府次元에서도 강력히 추진하려 하고 大企業과 中小企業 모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大企業에 의하여 主導되고 있으며 혹시나 大企業의 입장에서 部品産業의 취약성 때문에 部品産業의 固有産業 영역까지 침투하여 일괄 생산하는 体制가 구축되는 일이 없이 相互協同하여 專門化 및 系列化를 적극적으로 성숙시켜 나아감으로써 組立産業과 部品産業間에 系列化 및 專門化를 成長 發展시켜야 하겠다.

附加價值 生産性은 企業規模와는 關係없이 1인當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大企業보다는 中小企業型 규모의 部品生産企業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의 企業들의 기술경쟁은 重厚長大에서 輕薄短小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추어 部品産業側面에서는 國際的 兪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商品이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專門化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質的인 面이나 價格的인 面에서 輸出伸張에 이바지함은 물론 부가가치를 높여 組立産業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Ⅳ. 部品企業의 安定的 事業活動 助長

이미 1983年과 1984年에 中小企業型 部品企

業의 事業活動의 安定을 위하여 指定한 中小企業 固有業種 品目を 再考하여 部品企業들의 安定的 事業活動을 위해 이미 中小企業 業種 領域 침투가 있거나 영위하는 大企業에게 事業調整法에 의하여 그 事業을 中止 또는 제한함에 따라 大企業 보유 설비를 中小企業者들에게 처분 또는 양도하게 함으로써 部品企業의 安定的 事業活動을 助長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共存共榮의 企業 精神

부品の 專門 生産業체와 組立企業과의 系列化 확립은 部品産業의 品質 혁신을 촉진시키고 그에 따른 기술축적과 設備 近代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組立企業과의 系列化 關係에서 分業生産 체제의 利点を 極大化할 수 있는 것이며 그 結果 더 많은 部品企業의 生成을 촉진시키고 外部經濟 효과까지 가져옴으로써 組立企業과 部品企業間의 共存共榮의 高度化로 최종제품의 高度化 및 國際競争力を 強化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Ⅵ. 규모 위주의 정책이나 制度 지양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行政이나 制度가 規模의 크기나 수치 위주에 너무나 치우쳐 온 것 같다. 종합상사의 운영도 그러했고 輸出業체 運營도 그러했다.

물론 나름대로의 國家經濟中興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불가분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中小企業 육성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政府次元의 지원정책이 多角度로 경주되는 이때 아직까지도 部分的으로는 企業의 규모나 實績數值에 치우친 關聯制度가 많아 中小企業型 部品産業체들에게는 失意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한다.

少額輸出이라도 해나감으로서 輸出에 기여하고 市場多變化를 期해야 할 우리 立場에서 조그마한 實例를 든다면 海外市場 개척을 위한 出張時 필요한 여권發給에 있어서 大企業의 경우는 5年間 使用할 수 있는 複數여권을 發給해주고 企業의 운명과 같이할 中小企業에게는 2年밖에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을 發給해 주므로써 大企業

과 中小企業이 여권을 마련하는 데, 時間과 經費에 있어 2.5倍를 들여야하는 不合理性의 一例를 들 수 있다.

VII. 結 論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GNP에 차지하는 비율은 34%이고 대만은 56%, 日本은 57%로 상당히 뒤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의 中小企業型인 部品産業은 勞動集約産業에 머물러 있고 技術集約的인 部品産業이 日本이나 대만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성이 그만큼 뒤진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처럼 뒤진 中小企業型 部品産業이 發展하지 못한 原

因中の 하나는 大企業인 組立産業이 技術水準이 뒤떨어지는 國產部品을 使用하지 않고 外國에서 輸出用 原資材로 쉽게 輸入할 경우 輸出 金融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國內 部品産業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構造的 모순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未來의 均衡있는 産業構造의 개선을 위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 輸入되는 部品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여 部品生 産業體들이 이를 開發하여 輸入代替해 나아갈 수 있게 과감한 技術開發을 위한 정보와 유도가 필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한 行政的, 制度的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